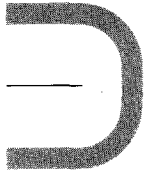


# 프로폴리스 효능의 체험사례



양봉협회보 새천년 9월호 6~7면과 10월호 6~7면에 「프로폴리스의 신비(神秘)로운 효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성인병(成人病)에 효과가 있다는 외국에서의 체험사례를 소개한다. (인용자료 ⇒ 관야광남(菅野光男) : 프로폴리스로 암을 극복할 수 있다. P158~194, 日本現代書林, 1996)

## 1. 당뇨병(糖尿病)

18년 전부터 당뇨병이 불과 1개월에 완치되어 건강이 회복되었다. (체험자 일본인 馬場千枝 씨, 48세, 여자)

위의 체험자는 18년간 당뇨병환자로 여러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유명한 큰 병원 등 종합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때의 위 환자인 마장천지(馬場千枝)씨는 공복시에 혈당치가 300mg/dl이 이상 이었다고 한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70mg/dl에서 110mg/dl 정도이므로 상당히 높은 혈당치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방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으나 혈당치는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겸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앞서 인용자료의 저자인 일본의 의학박사 관야광남(菅野光男) 선생의 지도로 프로폴리스와 한방약을 섞어 사용(試用)하였다. 그 결과 1개월 후에 위의 환자 마장천지(馬場千枝)씨의 혈당치는 99mg/dl까지 내려갔다.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18년간이나 내려가지 않았던 혈당치가 「프로폴리스」의 효과로 정상치로 되돌아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 후 1년 가까이 지냈으나 혈당치는 또다시 상승하지 않았다. 그리고 췌장(이자)기능도 정상이 되어 건강상태도 좋아져 당뇨병이 완치되었다.

▶ 췌장(이자)의 염증치료로 인슐린(insulin)도 분비된다.

성인형의 당뇨병은 자기면역질환(自己免疫疾患)의 질 일종으로 췌장의 이차적 염증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때 췌장의 내분비선인 랑게르한스 섬(Langerhans islet)부터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그의 이용장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원 인 포도당이 연소되지 않고 혈액으로 옮겨져 온몸의 대사기능이 변하게 된다.

「프로폴리스」자체는 유해활성산소를 소거하는 작용이 있다(9월

이 학 박 사 박 원 기(가보농산 고문), 한국식품사전 저자, 서울 신광출판사, 2000년7월발행

호 7면 下부터 행 7, 유해활성산소 소거작용). 특히 장(腸)·간(肝)에서 유해활성산소를 강력히 소거한다. 유해 활성산소의 작용이 활발해지면 장기의 여러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프로폴리스」는 이러한 염증을 진정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정상케 한다고 해명한다.

또,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눈밀, 신장(콩팥)이나 상·하지(어깨, 팔, 손 및 다리)의 말초혈관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어 대사(代謝)가 차츰 나빠지는 악순환이 있게 된다.

앞서 환자인 마장천지(馬場千枝)씨 처럼 만성 당뇨병을 오랜 기간 동안 있게 되면 위와 같은 증상이 차츰 진행된다. 「프로폴리스」는 어혈(瘀血:괴렇게 피가 맺혀 있는 증세)를 없애므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대사기능을 높여준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행이나 그 합병증 방지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이상과 같은 당뇨병 치료 효과는 앞서 마장천지(馬場千枝)씨 이외에도 여러 환자에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앞서 인용자료에 소개(P161) 되었다.

## 2. 만성 C형 간염(肝炎)

「프로폴리스」음용 3개월에 간기능이 정상으로 되었다.

(체험자: 일본인 육등화혜(育藤和惠)씨, 64세 여자)

위의 체험자는 C형 간염을 20년 전부터 있어 간장(肝臟)의 기능이 아주 좋지 않았다. 앞서 인용자료의 저자인 의학박사 관야광남(菅野光男) 선생을 찾아온 것은 3년전으로 그 때까지는 여러 병원에서도 별 다른 치료 효과는 없었고, 인터페론(Interferon)을 위의 체험자인 환자에게 권한 바 있었으나 이 약인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심하여 머리털이 모두 빠지거나, 신경계에 좋지 않은 피해를 입게되어 울증(鬱症: 가슴이 답답한 병증)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환자인 육藤씨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싫어서 인터페론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 약은 고령자일수록 효과가 좋지 않았다. 이 환자의 AST(GOT)은 310U/L, ALT(GPT) 값은 260U/L로 극히 높은 값이었다. 온몸에 권태감이 강하고, 체력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었고, 가슴이 끊임없이 압박된 것처럼 답답함을 느낌도 있었다.

▶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방 약 처방 투여 시작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 AST값은 80U/L, ALT 76U/L으로 각각 두 자리수로 내려가 상당히 개선된 셈이다. 그러나 정상 값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후에도 「프로폴리스」를 음용 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프로폴리스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났다. 음용 2개월 후 AST값이 62U/L, ALT값이 54U/L로 정상에 가까운 값까지 내려갔다. 이어서 1개월이 지났을 때는 AST, ALT 모두 50U/L인 정상으로 되었다. 이처럼 수치가 낮아질수록 온몸의 권태감이 없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 그 후는 병세도 완치되었다. 환자였던 育씨는 완치된 후에도 계속 「프로폴리스」를 건강 증진을 위해 음용 하였다.

「프로폴리스」가 C형 간염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함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 이는 「프로폴리스」가 바이러스에 항균작용이 특히 강하여 이것이 감염 바이러스를 격퇴하여 췌장(이자)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정확히 적중된 셈이다. 「프로폴리스」와 같은 우수한 역할을 하는 물질은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다. 이 「프로폴리스」는 꿀벌과 자연이 준 최고의 생약이라 말할 수 있다.

C형 간염이 만성화하면 간경변(肝硬便)으로 되기 쉽다. 그리하여 간경변은 간장암(肝臟癌)으로 변하기 쉽다. 「프로폴리스」는 위의 체험 환자였던 育藤和惠씨에 있어서 C형 간염의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간장암의 예방까지 했었을 것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 3. 심한 피부병(皮膚病)

질금질금 심한 습진(濕疹)이 「프로폴리스」 치료로 완치되었다. (체험자: 일본인 지木治美 씨 30세, 여자)

위의 체험자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증상이 치료되지 않아서 본인용자료를 저자인 의학박사 菅野光男 선생의 클리닉(Clinic:진료소)을 찾아온 환자로 아토피(atopy)성 피부염이었다. 「프로폴리스」로 치료중인 환자는 100명 이상이었는데 대부분 3개월부터 6개월 중에 완치 되었는데 위의 체험환자인 木治美씨는 증상이 심한 편이었다.

이는 유년 때부터 아토피로 고민하여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여러 민간 치료법대로 치료를 하였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아 고민해왔다 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천식 등의 「알레르기」(Allergie)성 질환을 비롯하여 난치병이라 하는 질환으로 고민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이른 식양(食養)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상기 체험환자인 木治美도 그 식양단체의 구성원이었다.

이 木治美씨의 증상은 온 몸에 큰 붉은 반점이 있고 특히 양쪽의 손, 발끝은 부종(부종:피하 조직의 틈에 조직액 또는 림프액이 많이 괴어 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부어 오른 상태)이 심하여 질금질금한 상태였다. 다른 병원에서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이 나타나 있었다 한다.

이 환자의 체질에 알맞는 한방약과 「프로폴리스」를 처방하여 치료

하기 시작하였다.

▶ 호전반응도 없이 아토피성 피부병이 완치되었다.

아토피의 환자에 「프로폴리스」를 처방했을 경우 일종의 체질개선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피로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호전반응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치료시작 1개월 후에 이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어 질금질금했던 습진의 고름이 줄어들어 온몸의 습진이 얇아지고 가려움증도 없어져 갔다. 2개월 차에 이르러 얼굴이나 허리, 팔목의 습진이 상당히 없어지기 시작했고, 3개월 차에는 온몸을 덮었던 습진이 깨끗이 없어졌다. 호전반응도 나타나지 않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이 환자의 경우는 자연 치유력이 자연히 향상되어 무리 없이 체질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다른 병의 경우에도 그와 같으리라 생각한다.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식양요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식품이 우리들의 혈액, 살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토피의 환자에는 중요하다. 환자였던 木治美씨가 오래 전부터 계속 해온 식양요법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프로폴리스」의 플라보노이드나 비타민이 「알레르기」를 방지한다.

「프로폴리스」를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이용할 경우에 음용뿐만 아니라 용해된 목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 극소량의 「프로폴리스」가 용해된 목욕물에 3%의 식염수로 마사지하면 간지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비만세포란 특수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 「프로폴리스」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항원이 결합하여 히스타민 등의 가려움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겨난다. 「프로폴리스」는 이 작용을 방지하며 가려움을 억제하게 한다.

아토피 환자들은 장간면역(腸肝免疫)의 역할이 약해져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침입하여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프로폴리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에는 장간면역을 높이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물질이 침입하여도 그것을 저지하므로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지 않게 한다고 설명한다.

「프로폴리스」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P(rutin), 비타민 H(biotin)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P인 루틴은 혈관을 튼튼히 하며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고, 동맥경화 방지에도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 H인 비오틴은 피부를 강화해주므로 균이 감염됨을 방지해준다. 「프로폴리스」를 음용 하면 살결이 매끄럽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비타민 H인 비오틴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풀이된다.

< 다음호에 갱년기 장애, 고혈압, 만성관절 류마티즘, 뇌졸중후유증 등의 프로폴리스 효능 체험사례 계속 >

※ 애독자에게 알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체험사례를 공모합니다. 